

강진군 쌀귀리융복합산업특구 지정...5년간 475억 투입

전국 쌀귀리 64% 생산...유통센터·재배면적 확대 등 12개 사업 농업기술진흥원 종자보급지역 선정돼 내년까지 종자 10ha 재배

강진군이 '쌀귀리 융복합 산업특구'로 지정돼 쌀귀리 생산 농가들의 판로를 개척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강진군은 지난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열린 제54차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진쌀귀리 융복합 산업특구'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역 특구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에 따라 강진쌀귀리 융복합 산업특구는 도로교통법 외 5개의 규제로부터 특례가 허용된다. 군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쌀귀리 종합 가공 유통센터 구성과 재배면적 확대, 지역축제 및 관광 연계 4개 분야 12개 사업 총 475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강진군 쌀귀리 재배면적은 900ha로 생산량은 3042t이며 전국 대비 64% 수준이다. 쌀귀리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겨울에 영하 4도 이상을 유지하는 온난한 기후가 필수 조건이다. 강진군은 1월 평균 온도가 1.4도 정도로, 쌀귀리 재배 최적의 조건을 지녔다.

군은 지난 2006년 농촌진흥청 시범 사업으로 쌀귀리 2ha 재배를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290여 농가가 838ha 면적에서 쌀귀리를 계약 재배하고 있다. 강진 쌀귀리는 농촌진흥청이 보급종 증식용 재종포를 운영할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았다.

군은 우량 종자 60t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계약 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재배 환경을 조성해왔다.

올해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자보급지역에 선정돼 첫째 5ha(20t), 내년에는 10ha(40t) 규모 종자를 생산한다.

강진군은 특구 지정에 도로교통법, 도로법, 옥외광고산업에 관한 법률과 연관된 필지와 현장을 조사하고, 규제 특례사항을 검토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여러 차례 방문하며 협의하고 주무부처와 연구기관에 자문하기도 했다.

강진지역 쌀귀리 생산업체와 농가, 농업기술센터와 특구 신청 계획에 대해 논의도 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날 열린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에 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해 강진 쌀귀리 특구 지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강 군수는 "경쟁력을 갖춘 강진 쌀귀리가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쌀귀리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향상은 물론, 나아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지렛대 삼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강진원 강진군수가 지난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열린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에서 '강진쌀귀리 융복합 산업특구' 선정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장흥군, 베트남 달랏시에 농특산물 판매관...100만달러 수출협약

달랏시 농특산물 판촉행사

장흥군이 베트남 달랏시에 지역 농특산물 전용 판매관을 개설하고 5년간 100만달러 수출협약을 맺었다.

장흥군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달랏시 베트남 달랏시를 방문해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벌이고 수출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1일에는 장흥군과 직거래지원센터, 베트남 청년마트 간 3차 수출 협약식이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장흥 대표 특산품인 무산김과 표고버섯 등이 5년 동안 100만달러(13억4000만원) 규모 수출될 방침이다.

장흥군은 방문 기간 낮에는 청년마트에서 판촉행사를 벌이고, 밤에는 달랏시 야시장에서 농특산물을 홍보했다.

달랏시 청년마트 건물 3층에는 약 66㎡(20평) 규모 장흥 농특산물 전용 판매관이 문을 열었다.

장흥 전용관 설치에는 장흥통합의료병원이 달랏시 분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성사됐다.

베트남 남부 랑동성에 있는 달랏시는 인구는 약 20만명의 도시다. 연중 서늘한 편으로 '달랏시 꽃 축제' 등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장흥군은 달랏시와도 상호 우호 협력 업무협약을 맺어 문화·관광·수출 부문 등 전반에 걸쳐 교류를 증진하기로 했다.

달랏시가 장흥군 통합의학박람회 찾은 계기



장흥군은 지난 9~13일 베트남 달랏시를 찾아 농특산물 수출협약을 맺고 베트남 청년마트와 야시장 등에서 무산김과 표고버섯 등 지역 특산물을 홍보했다. (장흥군 제공)

로 지난해부터 군은 달랏시와 우호 교류를 준비해왔다. 올해 3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판촉행사와 수출협약을 통해 장흥군 농특산물 수출 200억원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내수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수출을 통해 농특산물의 판로를 확대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연내 미국 LA한인축제와 전라도 해외 상설판매장과 연계해 서유럽(오스트리아) 등지에서 추가 판촉행사를 벌일 계획이다. /장흥=김용기 기자 chun@kwangju.co.kr

출을 통해 농특산물의 판로를 확대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연내 미국 LA한인축제와 전라도 해외 상설판매장과 연계해 서유럽(오스트리아) 등지에서 추가 판촉행사를 벌일 계획이다. /장흥=김용기 기자 chun@kwangju.co.kr

담양군, '지역인재 채용 지원사업' 기업 모집

담양군이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민간기업의 안정적인 지역인재 고용창출과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을 선정해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50만 원, 기업당 최대 1000만 원

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 기업은 담양에 소재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기업이며, 2023년 신규 채용과 지난해 대비 근로자 수 증가, 신규 채용 대비 지역인재 채용 비율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6일부터 25

일까지 10일간 담양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후 참여기업 신청현황(서식) 작성해 담양군청 투자경제과 담당자에게 메일 제출하면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담양군 내 민간기업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경쟁력 있는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나주 특화작목 '세지 세론이 멜론' 일본 첫 수출길 올랐다

100박스, 500kg 규모 선적

감미로운 향과 부드럽고 풍부한 과즙으로 사랑받는 나주 대표 과일 '세지 세론이 멜론'이 첫 일본 수출 길에 올랐다.

나주시는 최근 세지농협 멜론산지유통센터에서 세론이 멜론 일본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행사에는 운병태 나주시장,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 최명수 도의원, 이은상 세지농협조합장, 김성수 에스에스무역 대표, 김현성 영농조합법인 광수 대표 등이 참석해 일본 수출시장 개척을 축하했다.

이번 수출 물량은 100박스, 약 500kg으로 규모는 적지만 2019년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지난 4년간 중단된 수출시장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성과는 나주시와 전남농업기술원이 추진한 '지역특화작목의 해외시장 개척' 노력이 큰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나주시는 그동안 전남농업기술원과 수출 현장 종합컨설팅, 수출전문업체 발굴·육성, 연계 사업 추진에 힘써왔다.

나주주 세지멜론은 전체 재배면적 62ha, 72농



지난 12일 나주 세지농협 멜론산지유통센터에서 세론이 멜론 일본 수출 상차식이 열린 가운데 운병태 나주시장(왼쪽 네 번째)과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 최명수 도의원이 등이 참석해 일본 수출시장 개척을 축하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가에서 연간 평균 3196t이 생산된다.

나주는 연평균 기온이 15도로 적당하고 일조량이 풍부해 멜론 재배에 있어 최적의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2.5기작으로 재배하는데 특히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겨울멜론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세론이 멜론은 육묘 정식에서 출하까지 농가별 재배 작기에 맞춘 유기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생산

체계로 출하 농가의 큰 신뢰 속에 고품질 소득 작물로 부상하고 있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고품질 세지멜론 생산과 유통, 해외시장 개척에 애써준 농가와 전남농업기술원, 관계 업체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세지멜론과 더불어 나주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특화작목 발굴과 전문수출단지 육성·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 장애인 평생학습 운영기관 업무협약

동신대 등 10곳, 27개 프로그램

나주시가 모든 시민의 차별 없는 학습권 보장에 박차를 가한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사 이화실에서 평생학습 운영기관 10곳 대표자들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협약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기관과의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진행됐다.

협약에는 나주시화학교, 동신대학교(공연예술 무용학과·생활체육학과), 전남도 장애인재활협회,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종합복지관, 농아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사)한국시각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평생교육연합회 등 기관 10곳이 참여했다.

나주시와 각 기관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보급', '프로그램 홍보·지원', '강사 및 교육생 관리·지원', '학습 후 일자리 창출·연계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 연계', '학습자료·간행물 및

기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상호 교환', '시설물 활용'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안전하고 차별없는 학습도시 나주'를 비전으로 중증 발달, 시청각, 자폐 등 장애 유형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학습 분야는 화해, 동화 구현, 수어, 재난안전, 메이크업, 방송 댄스, 난타, 생활 스포츠, 장애인 식 개선 등 2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장애인 평생학습 운영기관별 프로그램은 나주시 평생학습 정보방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교육지원과 평생학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2020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에 이어 올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교육복지 한 축인 평생학습 영역이 폭넓게 확대되고 있다"며 "장애인과 더불어 나누어 배움 바꾸어 사업 등 시민 누구나 원하는 교육과 학습, 문화·체험활동 기회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함평군, 고추 칼라병 등 병해충 관리 당부

이상고온 총채벌레 피해 주의보

함평군이 생육기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지고추 TSWV(칼라병·사진) 등 병해충 발생에 주의할 당부했다.

TSWV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발병하면 잎과 열매에 원형무늬, 뒤뜸질, 열매 칼라색 발현 등의 증상이 나타나 열매 상품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주로 총채벌레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데, 고추 꽃에 숨어 있기 때문에 꽃을 털어서 총채벌레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즉시 방제를 해야 한다. 특히 5월과 6월은 총채벌레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는 칼라병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진단이 중요한 만큼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구비해 정확하고 신속한 예찰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은하 함평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갑작스러운 고온으로, 여러 병해충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만보 걷기로 건강 챙기고 기념품 받으세요

장성군, 3개월간 프로그램 운영 2개월 40만보 달성 기념품 증정

장성군이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생활 속 만보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해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성군의 걷기 실천율은 45.1%로 전남 평균인 44.7%보다는 높았으나, 평소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는 등 실천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성군은 1일 1만보 포함 1개월 누적 걸음 20만보 또는 2개월 40만보 목표를 달성한 군민 가운데 선착순 200명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단, 하루 최대 2만보까지만 인정된다.

스마트폰이 있는 장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6월까지 수시로 모집하며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접수 후 걸음 수가 기록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바로 시작하면 된다.

목표를 달성한 뒤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기록을 확인받고 기념품을 수령한다.

장성군 보건소 관계자는 "걷기는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누구나 실천 가능한 좋은 운동"이라며 "생활 속 만보 걷기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 건강 향상과 걷기문화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